

‘5.0 단계 삶’을 위한 ‘변형자산’의 필요성 연구*

- ‘인사이드 아웃’(Inside-Out) 모델에 기초한 100세 시대
중고령자 인력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이상훈(이라이프리카데미 선임연구원)**

- I. 들어가는 말
- II. 고령화 대응 방안과 ‘인사이드 아웃’
 - 1. 하향식(Top-Down)과 상향식(Bottom-Up) 고령화 대응
 - 2. 인사이드 아웃(Inside-Out) 고령화 대응
- III. 시간과 공간의 고령화와 배제문화
 - 1. 시간의 고령화
 - 2. 공간의 고령화
- IV. 새로운 생애 시나리오와 변형자산(Transformational Assets)의 필요성
- V. 5.0 단계 삶의 실현가능성 제고를 위한 신학윤리적 틀
- VI.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1.50.07>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18S1A5B5A07074412)

** 주저자, ptsemedu@hanmail.net.

• ABSTRACT •

A Study on the Need of Transformational Assets for 5.0 Stage Life: With
Emphasis on the Utilization Plan for the Middle- and Old-aged
Manpower in an Age of the 100-Year Life

Researcher Lee, Sang Hoon (E-Life Academy)

Instead of using neither top-down nor bottom-up approaches, this study proposes an inside-out approach to deal with the issues of low birth rate and population aging. The inside-out approach refers to inner transformation or becoming a new person that find expression in theological ethical living and human model. It is firmly based on the fact that only the Holy Spirit has the power to bring about a change in perspective on and attitude toward money, people, and world, as a result of inner transformation or becoming a new person. We will also examine how to tackle or overcome the limits and problems that are often caused in working (after retirement) mainly for financial reasons and government-led job creation project. The utilization plan for the middle- and old-aged manpower in an age of the 100-year life can be successfully carried out on the basis of transformational assets required for planning and living 4.0, 5.0- stage lives, which need to take transitions and receive reeducations.

Key words: Inside-Out, Population Aging, Middle-and Old-aged Manpower, 100-Year Life, Transformational Assets

I. 들어가는 말

고령화와 인구절벽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급감으로 노동력 부족에 직면할 수 있는 한국은 생산성과 국가 경쟁력 저하에 직면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8년 정점에 이른 후 줄기 시작한 '생산가능인구'는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감소가 나타났다. 우려스러운 미래에 대한 예측은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에서 더욱 힘을 얻는다.¹⁾ 유럽 주요 국가들은 고령사회에 들어서고 10~20년이 지나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반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감소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월등히 빠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속도의 차이만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할 것임을 말해준다.²⁾ 그런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의 대처 방안으로 논의되는 출산율 제고는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찾기 어렵고 정책효과가 실제 나타나는 현실화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추세의 개선"을 위해서는 중고령자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참가 실행 가능한 방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된다.³⁾ 비슷한 맥락에서 "여성과 청년의 추가적인 경제활동참가"가 세계 평균보다 3배 이상 빠른 한국의 고령화 속도⁴⁾가 초래하는 노동력 감소를 벌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진단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⁵⁾

1) 오민홍, "고령사회 대응 중고령자 인력활용," 「보건복지포럼」(2017), 50-66.

2) 신재우, "한국 생산인구 향후 20년간 19% 급감·OECD - 0.1% 불과," 연합뉴스, 2018. 1. 2. 접속 2021. 5.7. <https://www.yna.co.kr/view/AKR20171231028800017>; 오민홍, "고령사회 대응 중고령자 인력활용," 54.

3) 이재준, "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 「KDI정책포럼」 273(2019), 6.

4) 통계청,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통계청보도자료, 2019년 9월 2일자.

5) 이재준, "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 5.

우리나라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본격적으로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산업구조 및 노동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시책을 수립·시행”(제18조)함으로써 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다양한 노력을 펼쳤지만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대응이 기대 이하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의 여러 시도가 저조한 결과로 나타난 데는 “정책형성의 미흡, 정책 목표의 비일관성, 주요 대책들의 실효성 부족, 패러다임의 전환과 사회구조적 대응 실패” 등이 이유로 분석되었다.⁶⁾ 더구나 정부정책의 실효성과 무관치 않은 기업의 대응은 기대에 더욱 못 미치는 실정이어서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위기의식이 반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국내 기업들은 고령화 대비 환경의 미정비와 인건비 부담에 따른 지속적인 중고령인력 퇴출 관행 등 중고령인력 활용방안의 부진으로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또한 “전직 지원 서비스, 장년취업인턴제, 노인 친화형 일자리 발굴, 중고령자 창업 지원 정책” 역시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다.⁷⁾

그렇다면 정부의 고령화정책이 성과와 실행 면에서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위로부터의 정책적이고 정부주도에 의한 일자리 창출과 중고령인력활용에 대한 시도, 즉 하향식(top-down)으로 진행되는 접근이 갖는 한계로 볼 수 있다. 이는 중고령자들에 대한 이해와 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일자리 구비 노력에 있어서 민간과 정부의 편차, 현장의 정서와 정책적 시행 간의 괴리 속에서 도식적 정책 시행이 미흡할 수 있음을 가리킨다. 현장과 유리된 정책적 접근이란 종종 일방적일 수

6) 박선권,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 302(2017), 18-30; 오민홍 “고령사회 대응 중고령자 인력활용”, 59; 박선권,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NARS 현안보고서」 302 (2017); 참여연대,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진단 긴급좌담회,” (2015. 12.), 접속 2021. 5. 3. http://www.peoplepower21.org/PSPD_press/1382887

7) 오민홍, “고령사회 대응 중고령자 인력활용,” 61.

있고 현장에 대한 정책적 착시가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한계는 흔히 존재하기 마련이다. 또한 일회성으로 거치거나 지속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특징을 보일 수 있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하향식은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메커니즘이 주도하는 운영 원칙에 따라 가시적인 효과나 정책적 성과에 편중된 전시행정이나 단기 목표를 추구하는 동안 유효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기 어려울 수 있다. 객관성이 검증된 다양한 전문가적 평가보다 정치적인 입장이나 비현실적 견해에 의존할 수 있는 것도 이유다. 하향식은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중고령자들로부터 낮은 호응이라는 정책적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반면, 중고령자들이 노후대비의 미흡으로 경제적 필요 또는 취업이 불가피해 구직을 원하는 사례가 많은데 실제로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 적합성이나 관심영역과 무관하게 종종 업종과 분야를 '비자발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상향식(bottom-up)에 따라 밑으로부터의 취업에 대한 의지 및 일에 대한 욕구에 동기화된 경제적 이유가 우선시 되는 방식은 일에 대한 보람이나 의미 혹은 자기개발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일할 의욕, 능력, 필요까지 갖춘 중고령자들이란 평가에도 불구하고 '밑으로부터'의 구직자 중심 일자리 구하기와 인력 활용 방안이 비체계적이고 지속성이 약한 개인의 필요란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다.⁸⁾ 상향식 역시 이러한 이유로 경쟁력 있고 생산성 높은 인력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개발이 미진할 뿐 아니라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으로 지속성과 전문성이 결여될 공산이 커 저조한 참여로 나타난다. 결국 상, 하향식 모두 중고령자들을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적 인간'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이 중고령자인력활용에서 낮은

8) 김태유, 『은퇴가 없는 나라: 국가 경제를 이모작하라』(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3), 219-227.

호응과 성과의 원인 중 하나다.

본 논문은 그러므로 ‘인사이드아웃’(inside-out) 접근법을 시도하고자 한다. 여기서 ‘인사이드 아웃’의 의미는 취업이나 경제적 활동이(하향적 정책과 제도의 추동이나 상향적 개인의 의지와 욕구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내적 변화’ 혹은 ‘존재의 새로움’이 외적 ‘신학윤리적’ 삶과 인간 모델로 표출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물질과 타인에 대한 ‘관점 전환’(transformation), 그리고 ‘소유’가 아닌 ‘존재’가 부요한 자아로의, “태도 변화”에 인간(정부나 지자체 또는 자기 스스로)이 아닌 성령께서 “동인(動因)”임을 가리킨다.⁹⁾ 중고령자들의 경제적 이유와 현실에 따른 일에 대한 필요성 및 욕구에 기초한 이해나 정부 주도적인 고용창출과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가 아닌, 혹은 이들의 순기능과 기여를 수용하면서도 양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와 관련해, 『백세 인생: 저주가 아닌 선물』을 공동 저술한 런던비즈니스스쿨의 린다 그래튼(Lynda Gratton) 교수와 앤드루 스콧(Andrew Scott) 교수는 수명연장의 시대에는 교육·일·퇴직으로 이어지는 3.0 단계 삶에서 벗어나 변화를 가지며 재교육을 통해 새로운 직업을 찾는 4.0, 5.0단계의 삶을 준비해 살아야 한다고 조언한다.¹⁰⁾ 이를 위해서는 주택, 현금, 예금과 같은 유형자산(tangible assets)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면서 유형 자산 증식에도 기여하는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 중에서 변형자산(transformational assets)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100세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지표인 ‘최빈사망연령(가장 많이 사망하는 연령) 90세가 이미 우리 사회에 도래하였다. 100세 시대 중고령자 인력활용 방안 마련

9) Miroslav Volf, *Free of Charge*, 김순현 역, 『베룩과 용서』(서울: 복있는 사람, 2008), 167-188.

10) Lynda Gratton, Andrew Scott, *The 100 Year Life*, 안세민 역, 『100세 인생』(서울: 클, 2017), 10, 21.

을 모색하는 본 논문은 따라서 과도기를 갖고 재교육을 통한 ‘4.0, 5.0 단계의 삶’을 계획해 살아야 한다는 점에 착안해 삶의 단계를 더욱 늘려 (multi-stage life) 살 때 없어서는 안 될 ‘변형자산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위해 고령화에 대응하는 상, 하향식 접근과 이와 비교해 ‘인사이드 아웃’(Inside-Out)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II. 고령화 대응 방안과 ‘인사이드 아웃’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급감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노동 생산성과 국가 경쟁력 저하에 직면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8년 후 출기 시작한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감소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훨씬 빠를 것으로 나타났다.¹¹⁾ 유럽 선진국들은 고령사회(고령 인구 14% 이상)에 들어간 뒤 약 20년이 지나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반면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감소 속도 또한 매우 빠르다.¹²⁾ 이는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게 한다.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는 고령화 시대는 경험과 숙련을 지닌 중고령 인력의 고용 유지와 재취업 혹은 생산적 활동 참여가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은 우선, 정부와 개인의 시각에서 앞에서 언급된 대조적이면서 상관성이 높은 ‘하향식’과 ‘상향식’ 2가지 모델로 나타난다. 고령화 대응방안과 중고령자들의 인력활용에 관한 논

11) 신재우, “한국 생산인구 향후 20년간 19% 급감·OECD - 0.1% 불과,” 연합뉴스, 2018.

1. 2. 접속 2021. 5.7. <https://www.yna.co.kr/view/AKR20171231028800017>

12) 오민홍, “고령사회 대응 중고령자 인력활용,” 53-54.

의에서 고려돼야 할 점은 중고령자들의 잉여인력 혹은 비효율적 인력낭비와 암시적 또는 명시적 연령차별뿐 아니라 고령화와 수명연장 시대에 교육-고용-퇴직이라는 3.0 단계 삶의 모델이 지닌 한계이다. 따라서 ‘하향식’이나 ‘상향식’에서 상정하는 중고령기와 인간이해에서 벗어나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삶으로 관점과 태도의 변화 및 동기부여에 따른 일 인식과 나이 들이 수반하는 개인의 성장이란 관점에서 ‘인사이드아웃’ 모델을 필요로 한다. 100세 시대 중고령자들의 인력활용 방안에서 ‘인사이드아웃’ 모델이 이론적이고 실천적으로 담아내는 것은 과도기를 갖고 재교육을 통해 새로운 직업을 찾는 ‘5.0단계의 삶’으로의 이행이다.

1. 하향식(Top-Down)과 상향식(Bottom-Up) 고령화 대응

고령화 대응과 중고령자 인력활용과 관련된 정부의 노력에서 전시적인 면이 드러나며 정치 논리가 특정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터 한 일자리 창출과 노동인력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하향식’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는 비유기적이고 기계적인 인풋에 따른 인위적인 아웃풋은 정책의 비효율성으로 결과 맺을 수 있다. 위의 접근이 전제하고 흔히 형성하는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은 ‘합리적으로’ 행동하며 이기적이고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생계를 위한 노동으로서의 일에 대한 이해에서 탈피하지 못하므로 ‘고된’ 일을 무의미하게 지속하는 상황으로 전락하거나 그것에 한정되는 인간이해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이해는 중고령자들이 타율적 존재로 인식되며 자기중심의 틀 속에 갇힌 관점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낳게 된다. 생계를 위한 필요에 의해 불가피한 행위로서 일 개념과 일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기 힘들기에 자기 주도적이며, 효율성 있는 중고령 인력 활용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반면, 많은 중고령자들이 대개 경제적 이유로 인한 취업 필요성에 동기 화돼 '상향식'으로 일자리 구하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상향식'의 적지 않은 경우 그들이 업무 만족도와 취업 지속성에 있어서 유의미한 성취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하향식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재취업이 불가피한 그들에게 취업의 기회는 굴레처럼 고된 일을 무의미하게 반복하며 살아갈 가능성으로 상존한다.¹³⁾ 이 같은 생계를 위한 취업은 특성상 일과 구직자 간의 미스매치가 발생하기 쉽고 구조적으로 매워지지 않는 양자 간의 괴리가 취업 포기로 이어져 중고령 인력 활용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하향식과 마찬가지로 상향식 역시 인간은 이기심과 합리적 관점에서 대상을 추구하는 존재로 인식된다. 이 역시 위에서 언급된 하향식 고령화 대응에서 보인 것과 같이 중고령자들을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이란 인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합리적으로 행동하며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관점을 지닌 중고령자들에게 일자리 찾기가 취업에 대한 명확한 신념이 없이 생계유지를 위한 이유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구직 활동은 자율적인 것처럼 보이거나 실상은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적 필요성에서 비롯되기에 타율적인 면도 존재한다.

이상의 논의는 중고령자 재취업 문제는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이 구비되고 취업에 대한 중고령자들의 필요와 의지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이 양자가 바르게 실행되고 기능하도록 일에 대한 구직자들의 태도가 정립돼 심리적 조건이 갖춰지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하향식이나 상향식은 일과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중고령자들의 의식과 가치관

13) Richard Sennett, *The Craftsman*, 김홍식 역, 『장인』(서울: 21세기북스, 2010), 21; Hannah Arendt, *The Human Condition*, 이진우, 태정호 역, 『인간의 조건』(서울: 한길사, 1996), 74; Han, Byung Chul, *Müdigkeits Gesellschaft*, 김태환 역, 『피로사회』(서울: 문학과 지성서, 2012), 38-39.

이나 내재적인 취업 결정의 동기와 배경을 유발하고 담아내지 못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중고령자들의 인력활용에 대한 비유기적이고 인위적인 경향이 있는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하향식 접근이나 경제적 필요성 위주의 재취업 의사에 따른 상향식은 자아실현을 위한 취업의 목적과 유지의 조건인 의미와 공동선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이나 사회참여와 이를 지속시키는 개인의 변화와 성장을 배제할 수 있다. 취업자의 가치관과 일 인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뤄지지 않고 개인적 변화와 성장이 고려되지 않은 접근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취업의 성과가 저조하게 나타나는 것인지도 모른다.

2. 인사이드 아웃(Inside-Out) 고령화 대응

고령화 대응과 중고령자들의 인력 활용방안에 있어서 인사이드아웃 접근은 그들의 가치관과 내적 변화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의미 있고 생산적인 경제활동과 사회 참여에 주목한다. 중고령자들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는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게는 중년 이후의 제2인생을 통해 이뤄지며 나이 들에 따른 삶의 단계마다 일어날 수 있는 내적 변화와 깊이 관련된다. 우리는 도널드 캡스(Donald Capps)의 『10년 단위로 본 인생』에서 중고령자들이 10년간의 삶의 단계마다 어떤 내적 변화를 경험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캡스는 먼저 정체성 혼란이 오는 40대는 충실한 자아(faithful self)가 부각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때 자이는 “우리가 누구인지” 즉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성”에 충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타인과 사회적 역할에 딸린 과제”에 헌신할 수 있게 해준다.¹⁴⁾ 이 시기에 정체성 혼란 없는 안정감 있는 삶은 자아에 대한 충실함이 자신의 “임무(duty)나

14) Donald Capps, *The Decades of Life: A Guide to Human Development*(Louisville: John Knox Press, 2008), 99.

의무 (obligation) 혹은 서약(vows)에 대한 충실한 헌신”으로 나타날 때 가능하다.¹⁵⁾

그런데 정체성은 친밀감과 밀접히 연결되어 정체성이 확립되고 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친밀감을 갖는 게 가능해진다. 자신을 고립시킬 수 있는 50대는 타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이때 사랑을 베푸는 자아 (loving self)로 발전하게 된다. 진정한 친밀감은 남들과 관계를 맺고 협력하게 하며 희생과 양보를 마다않는 윤리적 힘을 발달시킨다.¹⁶⁾ 사랑하는 자이는 “인내, 친절, 경의, 시기, 자랑,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화내지 않는 것”의 실천으로 나타난다.¹⁷⁾

60대는 무관심한 상태에 빠지기 쉽기에 돌보는 자아(caring self)가 되기 위해 성숙성(generativity)이 요구된다. 여기서 성숙성은 “생기게 하거나 존재하게 하는” 의미가 내포돼 있고 “만들어 내거나 일으키는 능력”을 지니며 “다양한 형태의 창조성(creativity)과 생산성(productivity)”과 관계된다.¹⁸⁾ 60대의 성숙성이 실천되는 돌봄은 “확장되는 관심”을 말하며 돌봄의 미덕은 다음 세대를 지원하고 안내하는 생성적인(generative) 행위를 포함한다.¹⁹⁾ 이 시기에는 활동적이고 의욕적이기 위해 상호관계 경험 이 필요하며 그럼으로써 타자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자신을 증진시키는 것이다.²⁰⁾

노년기가 시작되는 70대는 마음이 “나뉘지거나 갈등하지 않는” 상태, 즉 “자신의 삶을 체념하지 않고 승인하여 수용할 때 갖는 평정심”인 “통합”(integrity)을 이뤄야 한다.²¹⁾ 이 시기는 보다 “포용력”과 “인내심”을 갖

15) 위의 책, 99-100.

16) 위의 책, 106.

17) 위의 책, 122.

18) 위의 책, 124-125.

19) 위의 책, 129.

20) 위의 책, 134-139.

추고 “이해심”과 “동정심”이 많으며 “열린 마음”을 소유한다.²²⁾ 이들은 나이 들에 대한 철학을 스스로 세워서, 정체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려고 하고 일상생활에 열정을 가지고 임하며 타자의 삶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자 한다.²³⁾

우리는 여기서 중고령기의 성장을 가리키는 ‘인사이드아웃’으로 내면의 변화에 따른 외적 행동이 달라지는 실례를 보게 된다. 중고령기에 해당하는 인생 단계의 과업과 관련하여 캡스는 에릭 에릭슨(Erik H. Erikson)을 원용해 각 단계의 성장을 이해하고 분석할 때 암시적이고 명시적으로 성서와 기독교적 관점에서 시도하고 그러한 측면을 중요하게 드러낸다. 캡스의 분석과 설명은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성”에 충실함으로써 타인과 주어진 직무에 헌신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과의 관계를 정진하고 돌봄을 실천하는 등의 변화 과정 속에서 기독교 신앙이 개인의 삶을 다르게 형성하였음을 나타내고 또한 개인 스스로 그렇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여준다. 성장을 통해 달라지는 행동으로의 외적 표현들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중고령자들이 성공적으로 변화와 과도기를 갖고 제2인생을 살기 위한 준비이며 변형자산을 가꾸는 것이다. 즉 자신의 정체성 정립, 다양하고 역동적인 네트워크,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 등이다.

이러한 이해는 먼저, 내면의 신념과 가치관의 변화가 행동과 선택에 있어 공감적이고 공동체를 위한 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찾아가는 이타적 윤리를 실천하고 타인의 삶에 적극 참여하는 관계형성의 인간 모델로 이뤄진다.²⁴⁾ ‘경제적

21) 위의 책, 151.

22) 위의 책, 157.

23) 위의 책, 157.

24) Paul Tillich, *Systematic Theology* Vol. III(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6), 149-161.

인간으로서 일에 대한 이기적 접근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의 기회로 의미와 가치를 찾는 경제 활동이기에 직업은 이타적 사랑이 실천되는 공간이다. 이타적 도덕성의 실천이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경제적 이익이나 타율적인 동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통한 자율적, 사랑의 행동에서 더욱 역동적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²⁵⁾ 이처럼 '인사이드 아웃'은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서 봉사과 섬김의 관점에서 일을 바라보고 취업을 이해하기에 임금(賃金)이나 대가를 넘어 더 깊은 의미와 보람을 경험한다. 자기에게 가치 있는 것만이 사랑의 대상이기에 추구하는 자기중심적 이기심과 반대로, '인사이드아웃'에 의한 발로로서 이타적 사랑은 창조적이어서 대상에게서 가치를 추구하기보다 대상을 위해 가치를 만들고 부여한다.

위의 하향식과 상향식 혹은 양자에게서 나타나는 인간이해에 따른 취업이해 및 타율과 자율적 인간을 중심으로 살펴본 중고령인력활용에 대한 문제점은 중고령자들에게 직, 간접으로 가해지는 배제와 차별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공간'과 '시간'에 대한 왜곡된 이해와도 관련이 있다.

III. 시간과 공간의 고령화와 배제문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사회경제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하며 그 결과를 내재화하고 또한 공동체 속에서 다른 구성원들에게 강제한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해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과 실천을 규정한다. 고령화는 단지 생물학적 변화인 육체적 나이 듦만을 말하지 않는다. 인간이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고령화는 공간과 시간 속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일어나고 진행되며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고령화로 인해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인간 특히 중고령자들의 소

25) 위의 책, 271-274.

외현상인 시간과 공간의 고령화가 발생한다. 고령화가 중고령자들에게 나이차별(ageism)을 초래하듯 시간과 공간에서 그들에게 사회 경제적으로 주변화시키고 배제가 일어나는 왜곡을 말한다. 이처럼 고령화에 의한 시간과 공간의 왜곡으로 빚어지는 배타성과 배제 문화를 여기서는 시간의 고령화와 공간의 고령화로 이해해 설명하고자 한다.

1. 시간의 고령화

고령화 및 중고령층과 관련해 개인의 의식과 사회시스템에 광범위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편견과 부정적 시각은 고령화사회가 극복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이다.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못지않게 고령화에 대한 그릇된 관념은 그것에 해당하는 연령층일수록 더욱 개인들을 소외시키고 무력화시키는 비인간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²⁶⁾ 모든 차별은 차별당하는 개인들의 의식과 행동을 부정적으로 변화시키므로 고령화에 대한 편견에 따른 연령주의는 나이를 이유로 개인을 옳아매는 이데올로기가 된다.²⁷⁾ 따라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중고령자들을 주변인으로 소외시키는 대신 '사회적 주류'로 수용함으로써 이들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 및 잠재력이 창의적으로 발현되도록 사회문화적 제약을 완화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고령기를 제한적인 경제논리로 판단하고 그에 더해 저효율적이고 비생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개인의 생애와 해당 연령층 인구의 많은 부분에서 시간의 고령화가 야기되고 확대된다. 시간 개념은 사회문화적 축적물이고 제도의 결과물이며 그 속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이다.²⁸⁾

26) Ashton Applewhite, *This Chair Rocks*, 이은진 역, 『나는 에이지즘에 반대한다』(서울: 시공사, 2016), 30-36.

27) Frank Schirmacher, *Das Methusalem Komplott*, 장혜경 역, 『고령사회 2018: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라』(서울: 나무생각, 2011).

수명연장으로 인해 나이와 시간에 대한 중고령자들의 왜곡된 의식과 장수에 따른 생애주기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은 일과 관련해 특히 주목을 끈다. 나이차별에 의한 생산성과 노동력 저하에 대한 도식적 이해와 '신화'(myth)적 편견이 오랫동안 지배해옴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중고령 인력에 대한 배제와 과소평가도 함께 지속돼 왔다. 이러한 중고령자들의 시간과 그들의 나이 들에 대한 '신화'는 일할 능력과 일할 의지를 약화시킨다. 그리고 생계로 인해 불가피한 '일할 필요'만이 전면에 나섬으로써 보람과 의미를 찾기 위한 일을 비현실적이게 하고 그것의 실현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중고령자들의 생애주기에서 적어도 삶의 일정 부분이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취급돼 시간개념에 고령화가 발생하고 노화인식은 일과 관련해 왜곡되어 취업에 대해 수동적이고 부정적으로 형성된다. 시간 개념은 공간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미치며 시간의 고령화는 공간의 고령화를 초래한다.

2. 공간의 고령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공간(空間)으로 단순히 존재하지 않고 어떤 성격을 띠고 특정한 형태로 존재한다. 인간 사회는 구성원들의 내면세계에 의해 규정되는 만큼 그들의 관점이 유의미하게 반영되거나 집단적 인식의 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²⁸⁾ 개인들의 인식이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의 방향성을 구조지우며 양자 간의 상호작용은 사회의 구조화된 방향성을 재현 또는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기제는 고령화사회와 중고령인구와 관련해서도 작동할 수 있다. 고령화사회가 중고령인구를 그들이

28) Lynda Gratton, Andrew Scott, *The New Long Life*, 김원일 역, 『뉴 롱 라이프』(서울: 클, 2021), 69-82.

29) Henri Lefebvre, *La Production De L'Espace*, 양영란 역, 『공간의 생산』(서울: 에코리브르, 2011), 71.

속하고 참여하는 장소에서 배제하거나 그들의 능력과 의욕에 대한 평가 절하가 발생할 때 전제하듯 공간의 고령화를 유발한다. 여기서 공간의 고령화란 공동의 삶이 전개되는 공공영역에서 중고령자에 대한 가시적, 비가시적 차별(특히 경제활동과 역할 및 기능면에서)과 배제가 발생함으로써 공공 영역을 구성하는 그들에 대한 ‘고령자’로서의 자기이해와 ‘고령 인구’로서의 공공(公共)의 이해를 의미한다. 이는 중고령자들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일과 직업에서의 역할과 기능을 약화시킴으로써 그들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이해이다. 일터나 직장에서 행해지는 중고령자들의 공간적 소외현상은 이들이 직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배제될 수 있는 존재로 간주됨으로써 ‘주변인’으로서 자기 이해와 사회적 인식이 정착되게 한다. 중고령층이 배제되는 소외현상은 경제활동 참여 인구를 줄어든게 하고 실제적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가속화하며 공공 영역의 고령화를 빨라지게 함으로써 전체 사회의 고령화를 심화시킨다.³⁰⁾ 그 결과 구직과 경제활동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낳으므로 중고령자들의 취업 의지를 꺾을 뿐 아니라 생계를 위해 불가피한 ‘노동’에 뛰어들게 만든다.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고령화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시, 공간이해는 사실 ‘경제적 생산성’ 가치의 강조와 경제적 관점 위주의 인간이해에 따른 결과로 경제외적 관점에서의 인간 이해와 인간성 회복에 관한 논의를 요청한다. 인간은 ‘경제적 존재’로서 합리적이고 이기적이지만은 않으며 배려하고 공감하는 존재로서 호혜적이고(*Homo reciprocus*) 더불어 살아간다(*Homo symbiosus*). 더구나 후자의 인간 모델이 오히려 경제적 생산성과 효과가 높다는 연구 결과는 공감과 호혜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³¹⁾

30) Lynda Gratton, Andrew Scott, *The New Long Life*, 김원일 역, 『뉴 롱 라이프』(서울: 클, 2021), 218-222.

31) 다음을 보라. Dev Patnaik, *Wired to Care: How Companies Prosper When They Create Widespread Empathy*, 주철범 역, 『공감하는 인간 호모 엠파티쿠스』(서울: 이상미디어, 2016).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만 이해되는 인간에 대한 관점은 하향식 모델이든 상향식 모델이든 경제적 이유만이 일을 하는 근거가 되기에 자기 모순적으로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적극적인 취업노력에 대한 의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 평가 절하된 중고령기의 시간과 중고령자들의 탈취된 공간은 고령화되어 상실된 시간가치의 인정과 공간의 재전유(reappropriation)를 통해 회복할 수 있다.³²⁾ 이러한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중고령 시기의 회복은 '인사이드 아웃'의 모델과 '변형자산' 형성의 조건과 밀접히 관련하여 이루어진다.

IV. 새로운 생애 시나리오와 변형자산(Transformational Assets)의 필요성

지금의 사회제도들은 기대수명이 65~70세를 겨냥한 것으로 '교육-일-은퇴'라는 3.0 단계 삶의 모델은 100세 인생을 예상하는 수명연장의 시대에 적절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을 수 있다.³³⁾ 따라서 3.0단계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삶의 단계를 더욱 늘려 살아야한다. 이에 따라 제2인생을 위해 자신의 기술, 지식, 역량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재교육을 받아 또 다른 직업을 갖고 살아야 한다.³⁴⁾ 이렇게 주장하는 린다 그래튼과 앤드루 스콧은 수명연장 시대에 주택, 현금, 예금과 같은 유형자산(tangible assets)이 중요하나 우정, 가족관계, 육체적, 정신적 건강, 지식, 기술과 같은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의 중요성을 강조한다.³⁵⁾

32) 안용성, "하이데거의 '세계'에 비추어 보는 르페브르의 '사회적 공간': 성서 서사 공간 해석을 위한 이론적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91(2014), 23-26.

33) 여기서 언급된 3.0, 4.0, 5.0은 린다 그래튼과 앤드루 스콧이 그들의 책 『100세 인생』에서 생애주기와 관련해 삶의 단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용어들이다.

34) Gratton, Scott, 『100세 인생』, 171-183.

35) 위의 책, 112.

우선, 3.0 단계 삶이 수명연장 시대에 직면하게 되는 한계는 유·무형 자산의 고갈과 관련된다. 3.0 단계의 삶은 평균수명 70세 이전의 생애에 맞춰져 있고 수명연장의 시대에 평균 35년간의 은퇴 기간은 연금을 포함한 유형자산의 고갈뿐 아니라, 인지능력과 삶의 질 저하 등 무형자산에도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³⁶⁾ 흔히 제시되고 선택되는 대안으로 과도기 없이 단순히 두 번째 단계를 길게 연장할 경우 오히려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중고령자들의 소외현상이 일어나 그들에게서 생애의 일정기간과 공적 영역의 박탈 및 왜곡을 낳을 수 있다. 그러므로 3.0 단계 삶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제2의 인생 혹은 더 많은 단계의 삶을 재설계하여 “생산적이고 활력이 넘치며 창의적이고” 즐거운 장수(長壽)가 되도록 해야 한다.³⁷⁾

그렇다면 삶의 단계를 더욱 늘려 살기 위한 시도는 어떻게 전개돼야 하는가? 먼저 “위험이 따르는 커다란 변화” 없이 같은 분야에서 자기의 기술이나 지식을 활용한 이직이든 과도기 없이 다른 직업으로의 전직으로 3.0 단계 삶의 “부록” 같은 3.5 단계 삶이나, 전일제 직장을 유지하면서 같은 분야에서 재교육을 받아 퇴직 후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형성해 유급의 일과 봉사 및 가사와 운동 등을 병행하든지, 자기계발을 통해 “독립적 생산자”로 창업을 시도하는 4.0 단계 삶을 계획할 수 있다.³⁸⁾ 더 나아가서 과도기를 가지고 타 분야 재교육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며 수입, 흥미, 의미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새로운 직업을 갖는 5.0단계의 삶을 준비해 살아갈 수도 있다.³⁹⁾ 이때 무형자산의 필요와 형성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부각된다. 무형자산은 세 가지 범주, 즉 기술과 지식을 말하는 ‘생산

36) 위의 책, 72.

37) 위의 책, 77.

38) 위의 책, 167-183.

39) 위의 책, 184-196.

자산(productive asset),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긍정적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활력 자산'(vitality assets), 자기인식(self-knowledge), 다양하고 역동적인 네트워크,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 등의 '변형자산'(transformational assets)으로 나뉜다.⁴⁰⁾

이 중에서 제2인생에 해당하는 4.0 단계와 5.0 단계의 삶에서는 정체성과 목적의식, 다양한 네트워크, 개방적인 태도 등이 무엇보다 요구되기에 변형자산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중년 이후의 제2의 인생이나 4.0, 5.0 단계의 삶으로의 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이(轉移)와 과도기의 불확실성 및 이에 대처하는 능력이 갖는 의미와 비중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고령인력활용은 “나이와 상관없이”, “실험 정신을 갖고”,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하며⁴¹⁾ 봉사과 섬김의 관점에서 일을 바라보고, 타자와의 관계를 정진할 뿐만 아니라, 재교육과 자기개발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변형자산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평균의 종말』의 저자 토드 로즈가 개개인성(個個人性)에 대한 충분한 고려대신 획일적 '평균'을 개개인 이해를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을 거부하고 개개인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개개인학'(the Science of the Individual)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⁴²⁾ 토드 로즈가 말하는 개개인학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논리에 따른 중고령 인력과 생산성과 효율성 저하의 기계적 등치가 유발할 시, 공간의 고령화는 관점의 변화 또는 재배치(무형자산 증식을 위한 준비로서)와 업무의 재배치(연령별 분업이나 일의 의미부여를 통한 유·무급 노동 참여의 독려 등)나 업무의 특성에 따른 창의적 구별을 통해 극복할 일이다. 업무의 배제나 나

40) 위의 책, 111-153.

41) 위의 책, 10.

42) Todd Rose, *The End of Average*, 정미나 역, 『평균의 종말』(서울: 21세기 북스, 2018), 32.

이와 업무역량의 단순한 연계는 위에서 지적했듯이 차별적일뿐 아니라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시, 공간의 고령화에 따른 사사화(私事化)를 초래할 것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 다양한 종류의 일과 활동을 위한 터인 공공 영역으로부터 배제나 차별에 의한 중고령인력의 재배치(소외)대신 인사이드아웃에 따른 인식과 가치의 재배치(변화)는 5.0 단계 삶의 필요에 대한 깊은 인식하에 이에 필수적인 무형자산 증식의 계기(변형자산의 확보 등)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V. 5.0 단계 삶의 실현가능성 제고를 위한 신학윤리적 틀

모든 연령층에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다양한 활동 가능성을 위해 개방된 공적 영역이 중고령자들을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만큼 사적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다. 나이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의미 있고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시간은 중고령자들을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만큼 중고령기의 평가절하에 따른 시간 가치의 축소로 이어져 공동의 삶에 대한 참여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시간의 공적 사용을 저해한다. 3.0 단계 삶의 모델에 대한 고수와 그 모델이 낳을 가능성이 높은 '경제적 인간의 상, 하향식 취업을 위한 제도의 시행(정부와 지자체 및 기업)과 '생계'만을 위한 경제활동 의지(개인으로서의 중고령 취업자들의)는 시간과 공간의 사사화(私事化)를 유발한다는 뜻이다. 중고령자들의 시간과 공간적 사사화는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가 말하는 모두의 '번성'(flourishing)을 위한 조건과 환경 조성에 대비된다.⁴³⁾ 따라서 공공영역과 공동의 삶에서 배제나 소외가 선택되는 대신 모두가 더불어 번성하기 위한 기초로서 시간의 가치 인정과 공간의 재전유(reappropriation)는 이웃 사랑과 공감의 실천을 추

43) Miroslav Volf, *A Public Faith*, 김명윤 역, 『광장에 선 기독교』(서울: IVP, 2014), 107-113.

구하는 의도가 취업이나 사회활동의 주요 계기가 되는 '신학윤리적 인간'을 지향하고 형성하기 위한 '인사이드아웃' 접근이 요구된다. 배제와 평가 절하로 사사화된 중고령자들의 시간의 의미 회복과 공간의 재전유는 '신학윤리적 인간'에게 적절하게 작용하는 신학윤리적 가치의 실천을 통해 촉진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5.0 단계 삶을 위해 필수적인 변형자산의 형성과 확충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럼 신학윤리적 인간의 형성에 요구되는 신학윤리적 덕목이 촉진되어 변형자산의 증식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우선, 개인과 공동체의 번성과 공공선을 가져오는 조건으로서 배제를 저지하고 포용을 앞세울 때 가능하다. 중고령자들에 대한 배제는 “상호 의존의 형식을 벗어나 극단적인 독립의 위치를 차지하려는 태도”에서 드러난다.⁴⁴⁾ 배제되는 타자로서 중고령자들은 지배세대의 공간으로 인식되는 공공영역에서 “무시하고 내버릴 수 있는” “잉여적 존재”가 된다.⁴⁵⁾ 이러한 관점과 짝을 이루는 것은 건강하고 창조적인 공동체에 필요한 나와 다름의 “타자성”과 구성원들 간의 “상호의존”에 대한 부인이다.⁴⁶⁾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열린 공간 및 그들이 누려야 할 공정한 대가와 존중은 축소된다. 신학윤리적 인간을 위한 신학윤리적 덕목의 실천은 배제되는 타자들의 시간(여기서는 중고령자들의 중고령기)의 가치 인정과 공간의 재전유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재창조된 “자아를 개방하고,” “타자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며 자신 안에 타자”를 받아들여야 한다.⁴⁷⁾ 이러한 신학윤리적 주제는 십자

44) Miroslav Volf, *Exclusion and Embrace*, 박세혁 역, 『배제와 포용』(서울: IVP, 2012), 101.

45) 위의 책, 101.

46) 위의 책, 101.

47) 위의 책, 107-108, 197-207.

가, 삼위일체(*perichoresis*), 성만찬 속에 스며있는 “우리 안에 다른 이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그들을 초대해 들이는” 것을 통해 교리적으로 설명된다.⁴⁸⁾ 나아가 이러한 신학윤리적 인간이 근거하는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사회적 관계는 “과업 지향적”이고 “제한된 헌신”과 “상호 유용성”에 기초한 계약(*contract*)이 아니라 “도덕적 헌신의 관계”속에서 “자아 안에 타자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자기를 내어주는” 언약(*covenant*)이어야 한다.⁴⁹⁾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만 서로 관계를 맺는 ‘자율적 인간’이 아니고 “상호적 유용성만이 아니라 공동의 ‘운명’과 같은 것에 의해서도 구속”되며, 나에 대한 타인의 “상응한 의무” 불이행이 상대에 대한 나의 의무 불이행을 정당화시켜주지 않기 때문이다.⁵⁰⁾ 배제와 소외에 의한 시, 공간의 ‘탈취’와 ‘사사화’는 위에서 암시된 변형자신의 증식을 위한 환경 조성에서 극복을 위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이는 다음에서 살펴볼 소외된 이들의 참여를 통한 공동체 윤리의 실천 안에서 일어난다.

‘경제적 인간’의 한계를 넘어 배려하고 공감하는 존재로서 호혜적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 유형에 걸맞은 신학윤리적 개념들은 ‘신학윤리적 인간’의 발현에 따른 ‘인사이드 아웃’ 모델로 적절히 표출될 수 있다. ‘인사이드 아웃’은 하향적인 정책과 제도의 추동이나 상향적인 개인의 의지와 욕구보다 더 확고하고 지속적인 내적 변화와 존재의 새로움이 신학윤리적 삶과 실천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유, 무급의 일과 사회활동의 동기가 되는 세상과 물질과 타인에 대한 시각의 전환, 그리고 ‘소유’가 아닌 ‘존재’가 “부요한” 자신으로의⁵¹⁾ 태도 변화를 가리키며, “베푸는 이”는 결

48) 위의 책, 204.

49) 위의 책, 233-246.

50) 위의 책, 236.

51) Miroslav Volf, *Free of Charge*, 김순현 역, 『베푸과 용서』(서울: 복있는 사람, 2008),

코 인간(정부나 지자체나 자기 스스로)으로 말미암을 수 없고 오직 “성령에 의하여 공동체의 훌륭한 실천을 통해” 태어날 뿐이다.⁵²⁾ 이 속에서 볼프가 강조하는 ‘번성’(flourishing)의 삶에 관한 설득력 있는 비전이 제시될 수 있고 잃어버린 중고령자들의 ‘시간’과 ‘공간’의 회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연령주의’(ageism)로 갈등하는 공동체가 고령화가 초래하는 다양한 필요의 대응 과정에서 ‘공유가치’를 설정하고 창출(creating shared value)함으로 세대 간의 화합이 가능하다.⁵³⁾ 가령 배제와 소외로 타자화된 세대들의 연대와 공존을 위해 연령별로 경제활동을 ‘가치 창출’과 ‘가치 이전’ 분야로 나눌 수 있다.⁵⁴⁾ 그리고 중고령자들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참여로 번성의 삶을 위한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배품의 공동체에 속한 일원들에게 주어진다. 모두의 ‘번성’의 삶을 위한 조건은 어떤 부류에게 어떤 ‘공간’과 ‘시간’에서도 배제와 소외가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여 선취된 ‘현재성’을 드러내는 것이다.⁵⁵⁾ 따라서 배제와 소외의 가능성에 노출된 ‘경제적 인간’으로 타자나 공동체의 필요에 대해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대신, 배품과 사랑의 공동체의 멤버로서 공공선을 앞세우고 지역에 대한 책임 있는 삶으로 취업과 유, 무급의 활동을 인식한다.⁵⁶⁾ 이러한 실천과 인식은 배려하고 공감하는 존

170.

52) 위의 책, 167-188; Moroslav Volf, *After Our Likeness: The Church as the Image of the Trinity*, 황은영 역, 『삼위일체와 하나님』(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140-190.

53) Miroslav Volf, *A Public Faith*, 김명운 역, 『광장에 선 기독교』(서울: IVP, 2014), 제4장 “인간의 번영”; Michael E. Porter and Mark R. Kramer, “Creating Shared Value,” *Harvard Business Review*, 89, nos. 1-2 (January-February 2011): 62-77.

54) 김태유, 『은퇴가 없는 나라』, 39-40.

55) 안용성, 『현상학과 서사 공간』(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329-330; Darrell L. Guder, *Missional Church*, 정승현 역, 『선교적 교회』(인천: 주안대학원대학교 출판부, 2013), 169-270.

56) Craig Van Gelder, Dwight J. Zscheile, *The Missional Church in Perspective*, 최동규 역, 『선교적 교회론의 동향과 발전』(서울: CLC, 2015), 217-219.

재로서 호혜적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신학윤리적 인간’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위의 논의는 ‘5.0 단계 삶’의 개념화와 실현성 제고를 위해 변형자산의 형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사이드 아웃’ 모델이 적절히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100세 시대 중고령자 인력활용 방안 모색에 우리 사회가 직면한 조건은 ‘상, 하향식’ 보다는 ‘인사이드 아웃’ 모델에 기초할 때 ‘신학윤리적 인간’의 발현으로 성과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고령자 인력활용 방안 마련은 배품과 사랑의 신학윤리의 실천에 따른 변형자산의 형성에 기초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다. 변형자산은 모두의 변성과 포용의 신학윤리적 틀에 타당하게 수용될 뿐 아니라 그것으로 더욱 증식되기에 ‘인사이드 아웃’ 모델의 적용을 통해 중고령자들의 5.0 단계 삶에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VI. 나가는 말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의거해 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한 중고령자 인력활용 방안 모색에 다양한 노력을 펼쳤지만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대응 면에서 볼 때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평가다. 정부의 고령화정책(및 기업의 대응 수준)이 성과와 실행 면에서 저조한 이유는 우선, 정책적이고 정부주도에 의한 하향식 접근의 도식적 정책 시행이 갖는 한계로 볼 수 있다. 반면, 중고령자들이 노후대비의 미흡으로 경제적 필요 또는 취업이 불가피해 직업과 업종을 ‘비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상향식은 일에 대한 보람이나 의미 혹은 자기개발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본 논문은 그러므로 ‘인사이드 아웃’의 접근법을 시도하였다. ‘인사이드 아웃’ 접근법은 취업이나 경제적 활동이 확고하고 지속적인

내적 변화 혹은 존재의 새로움이 외적 ‘신학윤리적’ 삶과 인간모델로 표출되는 것을 가리킨다. 중고령자들의 경제적 이유와 현실에 따른 일에 대한 욕구나 필요성에 기초한 이해나 정부 주도적인 고용창출이나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가 아닌 양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5.0 단계 삶’의 개념화와 실현성 제고를 위해 변형자산의 형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사이드 아웃’ 모델이 적절히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100세 시대 중고령자 인력활용은 ‘인사이드 아웃’ 모델에 기초할 때 ‘신학윤리적 인간’의 발현으로 성과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100세 시대 중고령자 인력활용 방안 마련은 변형자산의 형성을 위한 배움과 사랑의 신학윤리의 실천에서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변형자산’은 모두의 변성과 포용의 신학윤리적 틀에서 더욱 증식되기에 중고령자 인력활용을 위한 ‘인사이드 아웃’ 모델의 적용은 수명연장 시대에 중고령자들의 5.0 단계 삶에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태유. 『은퇴가 없는 나라』.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3.
- 박선권.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 302(2017), 18-30.
- 안용성. “하이데거의 ‘세계’에 비추어 보는 르페브르의 ‘사회적 공간’: 성서 서사공간 해석을 위한 이론적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91(2014), 5-31.
- _____. 『현상학과 서사 공간』.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 오민홍. “고령사회 대응 중고령자 인력활용.” 『보건복지포럼』 (2017), 50-66.
- 이재준. “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 『KDI정책포럼』 273(2019), 1-8.
- Applewhite, Ashton. *This Chair Rocks*, 이은진 역, 『나는 에이지즘에 반대한다』. 서울: 시공사, 2016.
- Arendt, Hannah. *The Human Condition*, 이진우, 태정호 역, 『인간의 조건』. 서울: 한길사, 1996.
- Capps, Donald. *The Decades of Life: A Guide to Human Development*. Louisville: John Knox Press, 2008.
- Colvin, Geoff. *Humans Are Underrated*, 신동숙 역, 『인간은 과소평가 되었다』. 서울: 한즈미디어, 2016.
- Demandt, Alexander. *Zeit: Eine Kulturgeschichte*, 이덕임 역, 『시간의 탄생』. 서울: 북라이프, 2018.
- Gratton Lynda, Andrew Scott, *The 100 Year Life*, 안세민 역, 『100세 인생』. 서울: 클, 2017.
- _____. *The New Long Life*, 김원일 역, 『뉴 롱 라이프』 서울: 클, 2021.
- Guder, Darrell L. *Missional Church*, 정승현 역, 『선교적 교회』. 인천: 주안대학교원대학교 출판부, 2013.
- Han, Byung Chul. *Müdigkeits Gesellschaft*, 김태환 역, 『피로사회』. 서울: 문학과 지성서, 2012.
- Lefebvre, Henri. *La Production De L'Espace*, 양영란 역, 『공간의 생산』. 서울:

에코리브르, 2011.

Lehmann, Paul, *The Decalogue and a Human Future: The Meaning of the Commandments for Making and Keeping Human Life Human*. Grand Rapids: Eerdmans, 1995.

Patnaik, Dev. *Wired to Care: How Companies Prosper When They Create Widespread Empathy*, 주철범 역, 『공감하는 인간 호모 앰파티쿠스』. 서울: 이상미디어, 2016.

Reichenbach, Hans. *The Philosophy of Space and Time*, 이정우역, 『시간과 공간의 철학』. 서울: 서광사, 1986.

Rose, Todd. *The End of Average*, 정미나 역, 『평균의 종말』. 서울: 21세기 북스, 2018.

Schirmacher, Frank. *Das Methusalem Komplott*, 장혜경 역, 『고령사회 2018: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라』. 서울: 나무생각, 2011.

Sennett, Richard. *The Craftsman*, 김홍식 역, 『장인』. 서울: 21세기북스, 2010.

Volf, Miroslav. *Free of Charge*, 김순현 역, 『베퓌과 용서』 서울: 복있는 사람, 2008.

_____. *After Our Likeness: The Church as the Image of the Trinity*, 황은영 역, 『삼위일체와 하나님』.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_____. *A Public Faith*, 김명윤 역, 『광장에 선 기독교』. 서울: IVP, 2014.

_____. *Exclusion and Embrace*, 박세혁 역, 『배제와 포용』. 서울: IVP, 2012.

Van Gelder, Craig, Dwight J. Zscheile. *The Missional Church in Perspective*, 최동규 역, 『선교적 교회론의 동향과 발전』. 서울: CLC, 2015.

논문투고일: 2021년 6월 30일

심사개시일: 2021년 7월 15일

게재확정일: 2021년 8월 19일

• 국 문 초 록 •

우리는 ‘인구절벽’에 맞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의거해 다양한 노력을 펼쳤지만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대응이 기대 이하란 평가다. 우선, 정책적이고 정부주도에 의한 일자리 창출과 중고령인력활용에 대한 시도, 즉 하향식으로 진행되는 접근이 갖는 한계로 볼 수 있다. 반면, 즉 밑으로부터의 취업에 대한 의지 및 일에 대한 욕구에 따른 경제적 이유가 우선시 되는 상향식은 일에 대한 보람이나 의미 또는 자기개발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본 연구는 ‘인사이드 아웃’의 접근법을 시도하고자 한다. 취업이나 경제적 활동이 내적 변화 혹은 존재의 새로움이 외적 ‘신학윤리적’ 삶과 인간모델로 표출되는 것을 가리킨다. 즉, 물질과 타인에 대한, 그리고 ‘소유’가 아닌 ‘존재’가 부요한 자신으로의, “태도 변화”에 인간이 아닌 성령께서 동인(動因)임을 말한다. 나아가서 본 논문은 100세 시대 중고령자 인력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과도기’를 갖고 재교육을 통한 ‘4.0, 5.0 단계의 삶’을 계획해 살아야 한다고 보아, 이들 늘어난 단계의 삶에 대해 각각 살피고 이러한 삶에 요구되는 무형자산의 중요성에 관해 고찰하며 그중에서도 ‘변형자산’의 필요성을 짚어본다.

주제어: 인사이드 아웃, 고령화, 중고령자인력, 100세 인생, 변형자산
